

#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에 헌신

### 전북교육청, 제39회 스승의날 기념 우수교원 정부포상 등 349명 수상

제39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에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받는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장관표창 114명, 교육감표창 233명 등 총 34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평생복지, 교육혁신 등의 부문



권미숙 교장      배청수 교장      안석태 교장

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참학력 신장 및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교원들이다.

근정포장을 받는 이리남초 권미숙 교장은 프로젝트 학습을 구현해 학

교문과 및 수업 혁신을 위해 공헌했다. 또 대통령표창을 받는 소양중 배청수 교장은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찾아오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칠보고등학교 안석태 교장이 선정됐다. 안 교장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재양성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은성기자

### 원광대 흥달아기 교수 가족관계학회장 취임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흥달아기 교수가 한국가족관계학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가족학회 연구회가 전신인 한국가족관계학회는 지난 1989년 창립된 단체다.



이 학회는 가족 건강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가족체계·현상 진단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가족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가족관계학회는 KCI기준 사회과학일반 학술지 57개 중 6위, 전체학술지(2292개) 중 학술지 인용자수 상위 10% 이내에 있으며 논문의 학문적 우수성과 학술분야·실천현장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학회 주요 활동으로 가족상담사와 생활교육사 민간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가족정책 보급과 가족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일·가족 양립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한 '가족친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흥 교수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련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 실천적 대안 마련과 정책반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석대학교는 대학일자리본부가 재학생들의 면접스킬 향상을 위해 '나를 브랜딩하는 드림 스피치' 과정을 진행한다.

### 우석대, 재학생 면접스킬 늘린다

#### '나를 브랜딩하는 드림 스피치' 과정 운영

우석대학교는 대학일자리본부 재학생들의 면접스킬 향상을 위해 '나를 브랜딩하는 드림 스피치' 과정을 진행한다.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공학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 과정은 급변하는 채용환경 속에서 재학생들의 실전 면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칭 프로그램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스피치 이해, 자신 있는 음성 만들기, 정확한 발음 만들기, 감정 발하기 성 공적 취업 선언문 작성과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강민구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앞으로도 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 학생들이 취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호원대, 대면 수업 전면 중단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호원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론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며, 30인 미만 실험·실습과목은 지난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2일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확진자가 나온 후 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12일 오후 학부과장 회의와, 13일 오전 전체 보직교수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13일 오후부터 실험·실습·실기 관련 교과목을 포함한 모든 대면 수업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실험·실습 수업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강희성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추후 모든 교과목의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서기관 승진대상자 4명 선발

#### 역량 평가 통해 최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역량 평가를 통해 2020년 7월 1일자 서기관 승진대상자 4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서기관(4급) 승진에 역량평가를 도입했다.

서기관 승진 심사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역량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추천을 거쳐 교육감이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강군석      고종복



박중배      조창근

현장평가는 5급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이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리더십 등을 평가하고, 역량평가는 5급 재직 기간 동안 주요 업무실적과 서기관 1인당 40분 이내의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역량평가는 평가위원 전체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실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대면 수업 전면 연기

#### 온라인 수업 전환... 일부 실험·실습·실기 과목 대면으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의 영향으로 오는 18일부터 예정이었던 대면 수업을 전면 연기하고 1학기 이론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대는 지난 4월 13일부터 10인 이하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를 허용해 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인 5월 6일부터는 수강인원 제한을 완화해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대면으로 운영해 왔다. 또,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 수업을 전체 이론 과목에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따라 12일 대책회의를 진행해 1학기 이론 과목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한해서만 충분한 방역조치를 거쳐 조건부 제한적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전주대에 따르면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글 행아웃미팅(Google Hangouts Meet)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를 권장하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제고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동영상 강의 수강 기간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축소했다. 주 1회 이상 진행되는 비대면수업 학사 모니터링위원회도 지속해서 운영된다.

수시고사 방식은 담당 교원이 학생의 의견을 종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기말고사는 기존 원격강좌의 경우,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강좌에 대해서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대면 시험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다시 안내해 공정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전주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1학기 모든 이론 과목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며 "꼭 실습이 필요한 학과를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먼저 진행하는 만큼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소독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